

타이어 시장 내수부진 장기화

고급화 추세로 레디알화율 증가 ... 수출은 양극화 뚜렷

수출호조와 내수부진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타이어 시장이 지난해에도 내수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정체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기업간 과당경쟁에 의한 유통재고 소진 지연과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둔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내수부진 현상은 다소 장기화 될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타이어 생산량은 4195만개로서 92년 3804만8000개에 비해 10.3%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증가율 12.3%에도 못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의 경우는 약 4200만개로 연평균 증가율 12.8%에 못미치는 10% 증가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내수는 1630만개로 지난 92년 1541만5000개에 비해 5.7% 성장수준을 보이는 등 연평균 증가율 13.5%에도 훨씬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989	1992	1993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내 수	9,823 (37.8)	15,415 (40.2)	16,300 (38.7)	5.7	13.5
*수 출	16,144 (62.2)	22,931 (59.8)	25,784 (61.3)	12.4	12.4
계	25,967 (100)	38,346 (100)	42,084 (100)	9.7	12.8

* 수출차용 타이어 포함, ()안은 점유율

구 분	1989	1992	1993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생산량	26,392 (391.1)	38,048 (564.4)	41,950 (595.3)	10.3 (5.5)	12.3 (11.1)
*구성비					
소형	86.7	87.2	88.8	12.2	12.9
대형	13.3	12.8	11.2	▽2.9	7.7
레디알 비중	69.9	77.7	83.2	18.1	17.3

* 수량기준, ()안은 중량(1000M/T)

구성비를 보면, 92년과 마찬가지로 신차용과 교체용의 구성비는 거의 같으나 승용차용은 신차용이 60% 정도로 높고 상용차용의 경우는 교체용이 63.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반해 수출은 92년부터 시작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 채 2578만4000개 물량을 보이며 연평균 증가율 12%보다 더 높은 12.4%의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규모도 10억달러를 눈앞에 둔 9억2500만달러로서 전년대비 8.2%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주요시장은 북미 24.1%, 유럽 23.5%, 중동 18.6%, 기타지역 33.9%를 보였으며 예년과 달리 북미·중동시장 비중은 낮아진 반면, 유럽·기타지역의 비중은 상당수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수출다변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타이어 시장의 94년 전망은 각기업의 증설효과 발생시기가 변수이긴 하지만 최소한 4500만개의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7.3%의 신장률과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회복주기가 예상되는 4/4분기부터는 전반적인 물동량 증가로 신차용 및 교체용 타이어 모두 높은 판매증가(내수신장률 10%)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수출은 생산량의 한계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전년대비 4.7% 수준에 묶일 것으로 보이는 등 최근 몇년간 계속되어온 내수부진과 수출호조의 양극현상이 점차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수요패턴은 계속적인 고급화 추세로 승용차용의 경우 100% 레디알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트럭은 73%, 버스 65.4%등 여객운송차량의 고급화 추세에 힘입어 92년 77.7%에 비해 18.1% 증가한 83.2%를 기록하는 등 레디알화율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